

第2回 防火隨筆懸賞募集當選作

☆……韓國火災保險協會는 77년도 제2回 防火隨筆을 全國에 懸賞募集했다. 지난 해 4……☆
☆……月 15日부터 5月 14日까지 1個月間 懸賞募集된 이번 隨筆募集에는 總 500餘通이……☆
☆……應募되었는데 作家 鄭然喜氏가 엄선하여 優秀作 3編, 入選作 7編을 選定한바 있다.……☆
☆……여기 優秀作 3編을 끝라 揭載해 본다. (編輯者 註)……☆

어 편 占 卦

崔 姬 織

(서울市西大門區 天然洞 中産아파트 2棟 215號)

쭈룩쭈룩 빗방울이 흘러 내리는 유리창 밖의 야경(夜景)은 오히려 도시의 그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었다.

—별로 손님도 없는 다방—.

이따금 비닐우산장사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처절하리만큼 느껴지는 그런 늦저녁 나는 두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기 위해 청량리까지 데리고 왔다가 극장표값을 건네주곤, 늦어도 여덟시까지지는 돌아올테니 구경이 끝

나고 이 다방에서 기다리라면서 가 버렸다.

막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러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루한 시간을 극장에서 보내라는 것이다.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또 다시 시골로 보내지 않으면 안된 데 대하여 나를 달래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동창생 P. 씨를 만나 차(車)상으로 얼마간의 돈을 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홉시가 거의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몹시 초조했다. 그날도 그러했지만 비오는 날은 늘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몇 년전 “훈”이를 분만한 직후도 산후조리라는 이유로 남편은 나를 시골로 쫓아(?) 보냈던 일이 있었다.

더구나 나는 결혼은 커녕 남들이 다하는 약혼이라는 절차도 없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훈”이를 낳은 처지라 친정으로 가기란 정말 죽기보

다도 싫었던 것이다.

6·25당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한분의 오빠와 언니 슬하에서 근근히 살아온 데다가 멋대로 어떤 남자를 사귀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 버려 놓고 안고 무슨 낚으러 어머니·오빠 앞에 나타날 수 있겠는가라는 죄책감이 더욱 더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실직(失職)으로 몹시 시달림을 받는 처지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나는 번번히 이렇게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도 남편에게는 순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정말 착하게 순종했던 것이다.

양가(兩家) 서로의 합의에 의한 혼인 절차를 밟지 못한 데다가 아기까지를 안고 들어온 딸을 그 어느 부모가 반가워할 것인가. 오빠의 엄한 눈초리 속에서도 잘도 견디어낸 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남편은 나와 아이들만을 친정으로 몰아 내고 있지 않은가 ×××

남편은 학교를 나온 후 첫 발을 드러놓은 것이 인연이 되어 내내 시원치도 않은 잡지사를 고작 두 달이 멀다고 다른 잡지사를 전전, 이제는 그 가난한 잡지사의 일이 그의 유일한 생활 수단이 되리만큼 잡지 만드는 일에는 능숙했던 모양이지만 잡지사란 그리 바람직한 직장은 못되었다.

그 번번히 못한 수입을 위해, 그 좋은 젊은 황금시절을 허망스럽게 보내고 있나 보았다.

남편과 나와 만난 것은 어느 잡지사에서였다.

내가 잡지사에서 일하게 된지 불과 일주일도 못되어 편집일을 맡아

보는 지금의 남편과 알게되어 비교적 목적없이 인연이 깊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두 달도 못되어 그 곳을 그만두었지만 남편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께잡생긴 얼굴에 적당한 “멋”도 있어 꿈 많은 여고시절에는 누구나가 한 번 째름은 그려보는 그런 이상형의 남자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 때 그는 조그마한 단간방을 얻어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틈이 나면 그의 단간방에 가서 그의 수고를 덜어주곤 했다.

나도 그것으로 어떤 보람을 느꼈고 또 그이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미혼 부부생활이 시작되었고 몇 달 후 올 것은 축임없이 오는 법인지라 지금의 “혼”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생활은 늘 말이 아니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착한 내조자가 되리라고 친번도 다짐했던 것이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에 취해오는 그의 생활에 나는 잘도 적응했고 바보스러운 아내가 되어 버렸다.

× × ×

열 시가 지나서야 만취가 되어 다방에 나타난 남편은 그날 따라 별로 말이 없었다. 남편은 몇장의 지폐를 쥐어 주면서

『막차가 열 한 시니까 지금 나가서 표를 사도록 해……』하는 한 마디 뿐이었다.

『……』

우리 일가 네 식구는 늦은 다방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남편의 그 짧은 한 마디는 떨리고 있었고 나의 전신의 혈관은 멈춰 있었

던 듯 했다.

그 때 남편은 실직한지가 이미 두 달은 되었으리라. 벌써 우리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만을 위해 오직 목숨만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지친 몸이지만 그 쇠약해진 몸 어느 한 구석에 아직도 애정같은 것의 여운(餘韻)이 있었나 보았다.

직장을 잃는 것은 가정마저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을 잃어도 아직은 가정을 잃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이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 ×

정거장은 막차를 기다리는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다.

이토록 분주한 많은 군중 속에서 오직 나만이 외롭고 버림을 받은 여인인 것만 같았다. 전생애 무슨 죄를 저지른 계집들이기에 사내들의 편리한 대로만 되어버릴 수 있는 세상일까.

불현듯이 나의 컷전을 모기소리처럼 “앵”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그날밤 나는 정거장 대합실에서 낱을 새기로 했다. 막차가 떠난 후 붐비던 대합실도 텅 비었다. 물론 나는 “착표”를 사지 않았다.

날이 새자 나는 아이들과 역전 어느 간이 음식점에서 라면으로 아침 끼니를 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응암동 언니한테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형부는 시멘트 벽돌을 찍어내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역시 나에게도 돈도 없는 언니였고 형부도 그런대로 이해심이 많았다.

나는 언니집에서 부엌일을 맡았

고 낮에는 다른 몇몇 여인들과 함께 형부의 인부들 틈에 끼어 노동을 했다.

인부들 중에는 짓궂은 남자들도 더러는 있었으나 노동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형부의 사업은 신흥마을로 각광을 받는 응암동 일대를 끼고 꽤 재미를 보는 모양이었다.

인부들의 손은 늘 모자랐고 수요량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형편에서는 나의 서투른 솜씨도 꽤 쓸모가 있었나 보았다. 나의 수입은 조금씩 늘어갔다.

어느덧 남편과 청량리역 어느 다방에서 헤어질 후 한 해가 흘렀다.

남편의 가난한 생활은 늘 마음에 걸렸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솔직한 고백은“... 돈 없는 미남형의 남자를 어떤 돈 많은 여자가 유혹이라도 하고 있거나 없을까.....”하는 불안이 더욱내 마음을 못견디게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그 아내를, 아내는 그 남편을 지키고 서로 차지해야 하는연대적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부부는 항상 그것을 위해 서로열에 있어야 한다. 어쩔수 없는 그리움, 일년간의 노동으로 얻은 돈은 19만원에 이르렀다.

× × ×

어느날 나는 언니와 의논하며 그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얻기로 했던 것이다.

남대문 중앙상가 D동이었다. 가게라야 1/4평밖에 안되는 널빤지 진열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의 희망과 기쁨은 하늘을 치솟았다.

그 동안 모진 자의선에 타버린 나의 얼굴이며 몸매는 촌티가 쪼르르 흐르고 있었지만 어수룩한 그런 몸매가 오히려 손님과의 거리를 더 축진시켰는지도 모른다.

수입도 괜찮았고 나는 “가게”라는 이름의 주인이 된 것이다.

나는 남편과 살던 노루목(성수동)으로 남편을 찾아갔다. 남편은 없었다. 집주인은 반가워했으나 말투로 보아 방세가 밀려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다만 남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은 것 만은 더없이 고마운 일이었다.

이윽고 남편은 거의 열 두 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남편은 나를 보는 순간 『이 못된 제집년!』하고 소리 지르자 남편의 굵은 주먹이 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것이 아닌가.

『꺼져버려? 무엇하러 찾아왔어? 잠년 같은 것. 어떤 놈하고 붙어먹다가 어슬렁 기어 들어 왔어?』

ით따라 남편의 발걸이 나의 옆구리를 얻어 차는 것이었다.

『.....여보! 여보!』

나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그를 목이 터지라고 불렀다. 기쁘기도 했고 야속하기도 했던 것이다. 나의 남편에게도 이런 역센면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옛날에는 느낄 수 없었던 사내의 내음이 순간 순간 야릇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아마 조물주께서는 그런 판국에도 남자의 냄새를 맡을수 있는 물염치한 향락을 여자에게도 주었는지도 모른다.

한 동안 나는 그의 무릎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그도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폭력을 친정에 있어야 할 내가 친정에 가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나는 그날 밤 사연 많은 얘기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초지종을 알게된 남편은 나를 이그러지라고 안아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내가 서대문에 새로 얻은 전세방에 우리 네 식구는 합치게 되었다. 남편은 연탄불을 갈아줄줄도 알고 어쩌다가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부엌일 까지도 손을 써주는 훌륭한 협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이웃집에 가서 TV를 보느라고 집에 돌아올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월부 TV를 들여 놓기도 했다.

TV를 보고 기뻐 날뛰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처럼 우리 내외간으로 하여금 두 아이의 부모임을 실감하게 한 적은 없었다.

× × ×

그러던 어느날 밤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 밀려왔다.

우리 가게가 있는 남대문 D동상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TV 임시「뉴스」였다. 그것은 감잡한 악몽이었다.

남편과 같이 화재 현장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소화작업도 거의 허사였다.

굳게 닫힌「셔터」의 두터운 벽, 유리창이 폭발되어 확산하는 화재 현장에는 소방원들의 접근도 허락되지 않았다.

벌써 모여든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굴러떨뿐, 뽕뽕 얼어붙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치고 통곡할 뿐이었다.

화마란 파연 인간의 최악의 비극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팔

활 타오르는 불길에 말해 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인간의 해이해진 곳에 새로운 각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재난이었다. 상인들은 허탈에 빠져 아예 눈을 잃고 있었다.

남편은 차가운 나의 손을 꼭잡고 달래려했다.

그러나……그러나……정말……나의 머리를 순간적으로 비쳐주는 촉광이 있었다.

두 달 전 귀찮게도 나의 가게를 찾아 온 보험 섭외원의 끈질긴 권유에 이기지 못해 백 만원짜리 화

재보험에 가입했던 사실이 나의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인간의 불행이란 생활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따라다닌다는, 지긋지긋하게도 굴던 그 보험회사 사원의 열성에 이기지 못해 3,210원의 제 1회 불입금으로 보험 금액 100만원의 화재보험증서를 받아 쥐었던 것이다. 그토록 귀찮았던 그 보험회사원이 어쩌면 그토록 신룡한 점괘(占卦)를 뽑아 주었는지를 장기 화재보험에 재가입한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불행속에서 우리 일가

를 구해준 이 화재보험회사원 이야말로 살아있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누가 단언 할 수 있겠는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고통으로 번져 오르고 있었다.

주저앉은 군중속에서

『……오! 보험이여! 당신은 나를 구해 주셨오! 하나님 아버지시여!』라는 어느 상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신룡한 화재보험회사원이 끈질기게도 뽑아 준 그 점괘는 우리의 새로운 행복의 제 2장을 펼쳐주고 있었다. (끝)

